

# 농심, 너구리 '완도 했다시마' 구매 시작



농심은 지난달 30일 완도군 금일도에서 열린 올해 첫 다시마 위판(경매)에 참석 다시마 구매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연간 400톤(t)의 다시마를 구매기로 한 농심은 수확기를 맞아 최고 품질의 다시마를 확보해, 리먼시장 스테디셀러 너구리의 인기를 이어가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상생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농심은 매년 약 400톤의 완도 다

시마를 꾸준히 구매하고 있다. 주로 협력업체를 통해 5월 말부터 7월까지 매일 경매에 나선다. 너구리 출시(1982년)때부터 올해까지 37년 누적 구매량은 약 1만5000톤에 달한다. 농심이 한해 구매하는 다시마는 국내 식품업계 최대 규모로 이 지역의 연간 건다시마 생산량의 15%에 해당한다.

37년째 농심에 다시마를 납품하고 있는 협력업체 신상석 대표는

37년간 1만5천톤 구매...국산 다시마 고집  
너구리 인기·지역사회 상생도 실천 계획

"너구리 덕분에 이곳 완도에서 다시마 큰손이라 불린다. 너구리의 인기 비결이 다시마 자체에 있는 만큼, 비싸더라도 최상품의 다시마를 선별해 사들이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농심 구매팀은 "연중 가장 바쁜 일 중 하나가 여름철 치르는 완도 다시마 구매 전쟁"이라며 "너구리를 사랑하는 소비자들과 다시마를 양식하는 완도 어민들을 생각하면 힘든 것보다 얻는 보람이 더 크다"고 말했다.

너구리 다시마의 고향인 완도군 금일도는 국내 다시마 최대 산지로 유명하다. 일조량과 바람 등 다시마 양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금일도에서는 5월 말부터 7월까지 3000톤 내외의 다시마가 생산된다.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60~70%다. 완도금일수협 김승의 상무는 "올해도 품질 좋은 다시마를 3000톤 이상 생산, 판매하는 게 목표"라며 "다시마 작황은 기후에 따라 매년 달라지는데, 농심의 꾸준한 다시마 구매는 완도 어민들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된다"고 전했다.

농심은 1982년 너구리를 개발할 당시, 차별화된 해물우동의 맛을 구현하기 위해 완도 다시마를 선택했다. 별도 가공없이 그대로 들어가는 완도 다시마는 너구리의 상징으로 꼽힌다. 너구리는 오동통한 면발과 얼큰한 우동국물이 특징으로, 매년 1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리먼시장 대표 인기제품이다.

원도=김광수 기자

## “치킨집, 창업보다 폐업이 많다...매년 8600곳 문 닫아”

KB금융그룹 지영업 분석 보고서

최근 새로 문을 연 치킨집보다 폐업하는 곳이 더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매년 8600곳의 치킨집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KB금융그룹이 발표한 'KB 지영업 분석 보고서'의 첫번째 시리즈 '치킨집 현황과 시장여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창업하는 치킨집보다 폐업하는 곳이 더 많았다. 창업하는 치킨집은 4년간 평균 6800곳인 반면 폐업 식당은 8600곳에 달했다.

최근 영업비용이 증가하며 규모가 큰 매장을 위주로 폐업이 늘고 새로 문을 연 식당의 평균 면적은 줄어들었다. 폐업매장 평균 면적은 2011년 58.1㎡에서 지난해 64.7㎡로 확대됐다. 창업매장의 면적은 같은 기간 67.5㎡에서 60.1㎡로 감소했다.

전체 프랜차이즈 창업 중에서는 치킨 업종의 가맹점 수가 선

두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기준 외식프랜차이즈 가맹점 11만6000개 중 치킨집이 2만5000개(21.25%)로 가장 많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 상위 5개 업종 중 제외된 한식과 주점, 분식 가맹점 수는 감소세를 보이지만 치킨집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커피업종은 상승 추세다.

치킨 브랜드 중 가맹점이 가장 많은 곳은 BBQ였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1659개 매장이 있으며 지난 2015년 이후 4년 연속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어 BHC(1456개)와 페리카나(1176개), 네네치킨(1167개), 교촌치킨(1037개) 등이 뒤를 이었다.

앞으로 치킨 시장 영업여건은 악화될 상황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비용은 지난 2011년 6200만원에서 지난해 1억1700만원으로 89%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0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32% 감소했다.

뉴스스

### 2일 새벽 손흥민 뛰자 편의점 매출도 뛰었다

술·안주 매출 30~40% 상승

손흥민(27)이 뛰자 편의점 매출도 뛰었다.

3일 편의점 씨유(CU)에 따르면 2018-2019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열린 2일 새벽 시간대 매출은 지난해 같은 시간 대비 33% 증가했다. 해당 경기는 새벽 4시부터 진행됐다.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과 리버풀이 맞붙었다. CU는 "24시간 중 고객수가 가장 적은 새벽에 이례적으로 매출이 급증했다"고 했다.

매출이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품목은 주류였다. 맥주 매출은 전주 같은 기간(자정부터 오전 8시)과 비교할 때 37.7%, 와인 23.0%, 소주 20.4% 올랐다. 냉장 안주는 46.4%, 육가공류는 36.9%, 마른안주류는 34.7% 상승했다.

새벽 시간대 출출함을 달래줄 간편식 매출도 크게 올랐다. 도시락 17.5%, 햄버거 20.1%, 김밥 19.5%, 냉동즉석식(떡볶이 등) 29.7%, 냉동즉석식(냉동만두 등) 48.0%, 리면 26.7% 증가했다. 이외에도 아이스드링크 28.4%, 커피 18.6%, 생수 19.8%, 탄산음료 21.1% 등 음료 매출도 20~30% 가량 올랐다.

### 핀테크사 증권업 진출 잇따라...11년만에 증권사 탄생 '주목'

카카오페이에 이어 토스까지 증권업 진출을 선언함에 따라 11년만에 새로운 증권사가 탄생할 지 여부가 증권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에서 탈락한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는 지난달 30일 금융당국에 증권사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신청 업무 단위는 투자중개업이다. 투자중개업은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아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파는 업무다. 모든 업무는

오게 된다.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위한 마지막 단계를 남겨놓고 있다. 현재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이 떨어질 경우 카카오페이는 공식적으로 증권업에 진출하게 된다.

대주주 적격성심사에도 탈락하는 경우와는 다른 관계사들과 함께 바로투자증권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

졌다. 네이버의 경우 인터넷은행 설립을 먼저 추진한 뒤 증권업에 뛰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높다.

이처럼 핀테크 업체들의 증권업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이들 업체들이 성공을 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증권사의 수익구조가 위탁매매 중심에서 투자은행(IB)과 자산관리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규 증권사가 수탁수수료 수익으로 버티는 것이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들 업체들이 모바일·인터넷 시장에서 젊은 층 고객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만큼 20~30대의 주식시장 신규 유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와 여파로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업체가 안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모바일 금융 등에서 젊은 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업체들의 증권업 진출로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이어질 지 아니면 기존 파이를 나눠먹는 식으로 운영될 지 관심이 크다"며 "11년만에 새로운 증권사가 탄생할 지 주목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토스, 증권사 설립 예비인가 금융위에 신청...이르면 다음달 결론  
카카오페이도 증권업 진출 속도낼 듯...성공 여부 두고 감론을박  
"수탁수수료로 수익 어려워" vs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기대"

이전 서비스들과 마찬가지로 지점 없이 계좌 개설부터 거래까지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예비인가 신청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토스가 예비 인가를 승인받았다면 2008년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인가를 받은 10여개 증권사들이 탄생한 이후 11년만에 신규 증권사가 나

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두 경우 모두 증권업 진출이라는 대명제가 바탕에 깔려있다.

"증권사 인수는 사실 무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네이버도 증권업에 진출할 수 있는 잠재업체로 분류된다. 네이버는 지난해 1월 일본에서 라인파이낸셜을 설립하고 같은 해 6월 노무라홀딩스와 합작법인 형태로 라인증권도 설립했다.

올해는 대만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고 내년에는 일본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것으로 알려

### LPG 규제완화 후 시세 변화

하이딜러

규제완화 전 (2019년 1월~3월) vs 규제완화 후 (2019년 4월~5월)



### “LPG규제완화 후 중고차시세 최대 6% 상승”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규제완화 후 중고 LPG차량의 시세가 최대 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 하이딜러에 따르면 LF쏘나타는 규제완화 전 1051만원에서 규제완화 후 1113만원으로 5.9% 가격이 상승했다. 울뉴 K7은 1995만원에서 2105만원으로 5.5%, 그랜저 IG는 2511만원에서 2564만원으로 2.1% 상승했다.

경매 입찰 수도 최대 40% 늘었다. 그랜저IG는 규제완화 전 평균 입찰달러 수 8.7명에서 규제완화 후 12.1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울뉴K7은 평균 7.6명에서 8.3명으로 LF쏘

나타도 9.1명에서 10명으로 평균 입찰달러 수가 소폭 증가했다.

지난 5개월간 하이딜러 중고차 경매에 올라오는 전체 차량에 참여한 평균 입찰자 수는 8.9명이었다.

이번 분석은 지난 1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5개월간 11만3850건의 하이딜러 국산차 경매차량 중 출고 5년 이내 LPG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하이딜러 관계자는 “중고차 시세가 일반적으로 월별 평균 2~3% 하락하는 점을 고려하면, 출고 5년 이내 쏘나타 K7, 그랜저의 LPG중고차의 실질 시세 상승폭은 최대 4~9%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